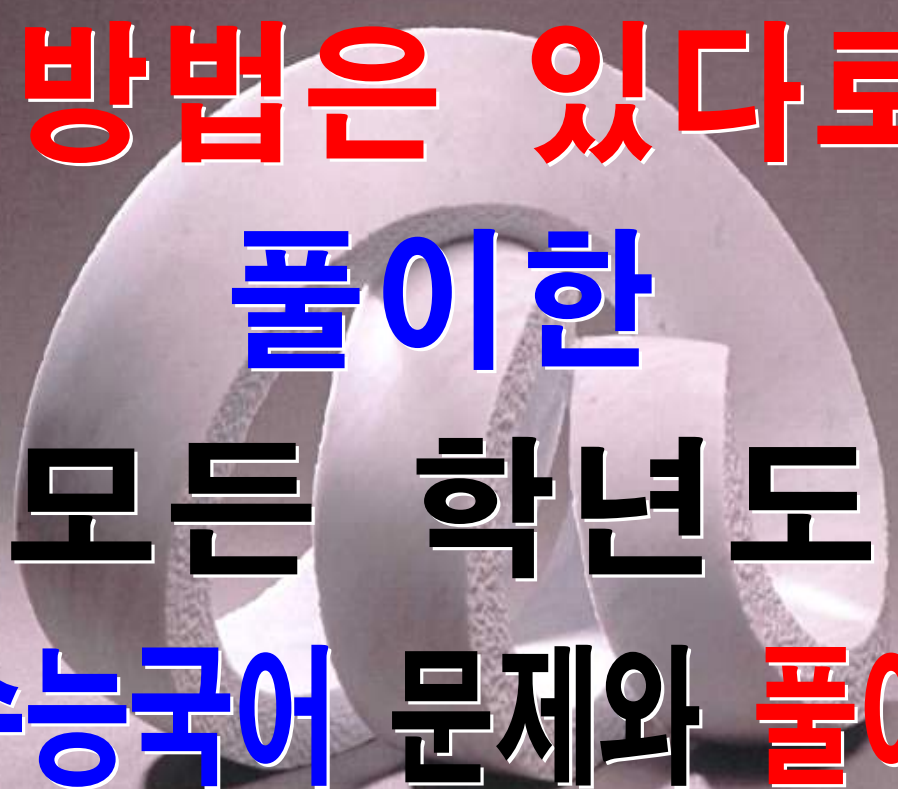


수능국어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모든 학년도(2019, 18, 17, 16AB) 문제와 풀이

이성호 저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모든 학년도
수능국어 문제와 풀이

2016 수능국어 (A형)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2016 기출 수능국어 문제와 해설

이성호 저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2016 수능문제

2016 수능 국어 A형 문제

홀수형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
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문화 해설사 ○○○ [A]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B]

해설사 :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
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C]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
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
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D]

진행자 :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
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
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
시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E]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0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0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어?

학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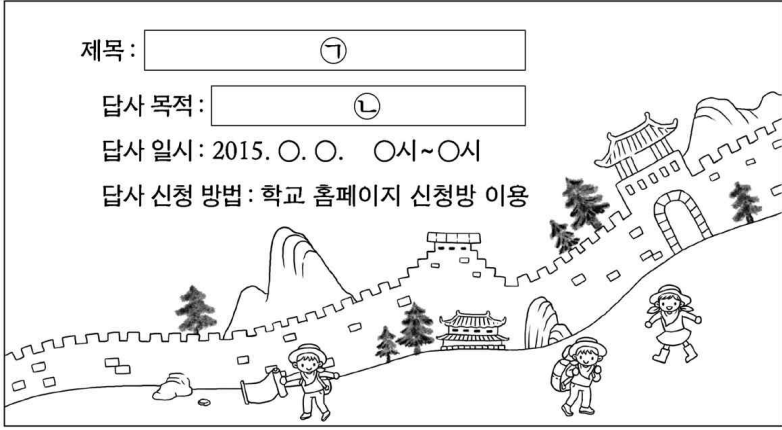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

답사 목적: ㉡

답사 일시: 2015. ○. ○. ○시~○시

답사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신청방 이용



- ① ㉠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 ㉡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② ㉠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 ③ ㉡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 ㉢ : 남한산성에 얹힌 항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 ④ ㉣ :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 ⑤ ㉥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 ㉦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3~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희토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네. 그러시군요. 희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희토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원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잘 아시는군요.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57부터 71까지의 원소와 그 외의 2개 원소를 합친 17개의 원소를 가리킵니다. 희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그럼 다음으로, 희토류의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여 주며) 희토류 중 하나인 이트륨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희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에 발광 재료로 쓰이는데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희토류 중의 하나인 네오디뮴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희토류를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희토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면 2010년의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약 13만 톤이었는데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토류는 특정 광석에만 존재하며, 광석에서 분리하여 정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희토류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토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희토류의 개념과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

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제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히토류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히토류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 [A]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 ② 발표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시키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발표를 시작할 때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대상의 특성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한 후 이를 요약하고 있다.

04 다음은 학생의 발표 연습을 들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 중 학생이 발표에서 실제로 반영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해요. ㉠발표 목적을 청중들에게 환기시키고 ㉡산업 분야에서의 히토류의 역할을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히토류와 관련된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히토류에 대해 청중이 관심을 갖기를 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

05 다음은 발표를 들은 청중이 발표자에게 한 질문의 일부이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생 1 : 이트륨을 포함한 화합물을 사용한 TV 스크린 제품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비교할 때 실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①
- 학생 2 : 네오디뮴을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네오디뮴이 포함된, 강한 자성을 갖는 화합물을 활용한 다른 제품 사례는 없나요? ②
- 학생 3 :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③
- 학생 4 : 광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여 정제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생산 기술을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④
- 학생 5 : 2050년에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소개하셨습니다. 미래의 희토류 수요량을 예측한 다른 연구 자료는 없나요? 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계획

- 처음
 -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특성 서술㉠
 - 앱 개발 시 부딪히는 난점 언급㉡
- 중간
 - 공공 데이터의 개념 정의㉢
 - 공공 데이터의 제공 현황 제시㉣
 - 앱 개발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가 갖는 장점 진술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제시㉤
- 끝
 -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
 -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 언급

[가]

초 고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 사람들이 여행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한 번에 여행 코스를 짜 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㉔도심에 주차장을 못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주차장을 쉽게 찾아 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막상 앱을 개발하려 할 때 부딪히는 여러 난관이 있다. 여행지나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도 문제이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㉕그래서 이제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공공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된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 포털사이트에서는 800여 개 공공 기관에서 생성한 15,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의 양을 꾸준히 ㉖늘리고 있다.

공공 데이터가 가진 앱 개발 분야에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㉗시행된 정책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가 많다는 점이다. 앱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는 대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의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만약 여행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에서, 주차장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방 자치 단체의 주차장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는 비용이 거의 ㉘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다.

[A]

06 ‘작문 계획’의 ㉗~㉘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㉗
 ② ㉘
 ③ ㉕
 ④ ㉖
 ⑤ ㉗

07 ‘작문 계획’의 [가]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공공 데이터는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앞으로 공공 데이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② 공공 데이터는 자본과 아이디어가 부족해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앱 개발을 통한 창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공공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앱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 ④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 준다. 그러므로 앱 개발 시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 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다.
- ⑤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을 할 때 부딪히는 자료 수집의 문제와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08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도심에서'로 고친다.
- ② ㉡ : 앞뒤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친다.
- ③ ㉢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늘이고'로 고친다.
- ④ ㉣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시행한'으로 고친다.
- ⑤ ㉤ : 사동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들지'로 고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길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0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 | | |
|---|------|---|---------------------------------------|
| ① | 버스 | → |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 ② | 새 소리 | → |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
| ③ | 나뭇잎들 | → |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
| ④ | 가을 | → |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
| ⑤ | 친구들 | → |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1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옹지 → [울치], 좁히다 → [조피다]
 ㉡ 끓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솟도 → [순또], 웃고름 → [온꼬름]
 ㉣ 닳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입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 ① ㉠,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③ ㉢, ㉣ : ‘깁다 → [깁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 ㉤ : ‘얹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아-’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B : 눈이 아주 나쁜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1[문]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2[조]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1][동] [(…과)…을]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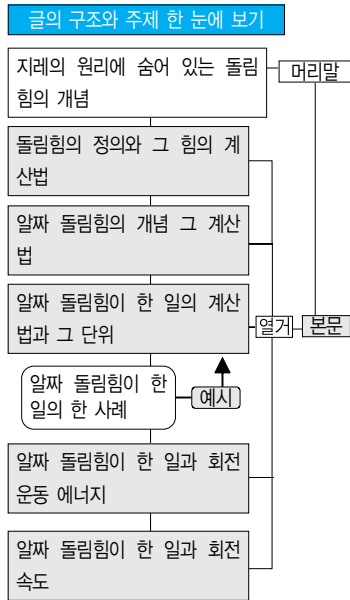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2]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레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지레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 한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레의 원리에는 돌림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 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잇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 \cdot m$ (뉴턴미터)이다.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

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J(줄)이다.

가령,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이 정지해 있다고 하자.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 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가] 300 N의 힘으로 밀고,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 m만큼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 N의 힘으로 미는 상태에서 문이 90° 즉, 0.5π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은 50π J이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지렛대의 원리에 숨은 돌림힘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라디안 : 원둘레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호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 ②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 ③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
- ④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17 [가]에서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 ②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 ③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 ④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은 방향이 같다.
- ⑤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크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원판'의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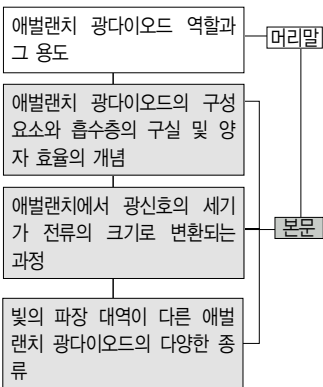
[보기]

돌고 있는 원판 위의 두 점 A, B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R 만큼 떨어져 O, A, 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A, B에는 각각 $\overline{OA}$, $\overline{OB}$ 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준다.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단,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다.

- ①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② A,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 ③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④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애벌랜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

한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실리콘은 300~1,100 nm*, 저마늄은 800~1,600 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 nm :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역할과 그 용도를 소개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나눠 그 역할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광통신 : 영상, 음성, 데이터 따위의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꾸어 보내는 통신.
- 광자 : 빛을 입자로 보았을 때의 이름.
- 대역 : 어떤 폭으로써 정해진 범위.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준다.
- ②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 ③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 ④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100 nm 파장의 빛을 검출할 때 사용 가능하다.
- 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 ② ㉠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 ③ ㉠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양공 쌍의 수는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
- ④ ㉠에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 ⑤ 흡수층에서 ㉠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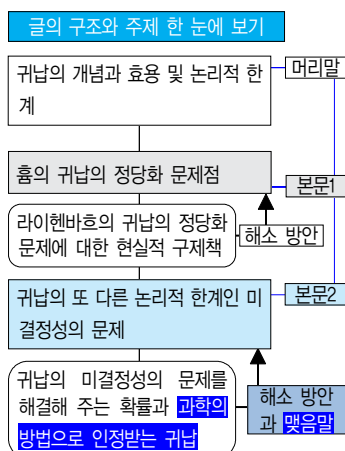
21 |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예비 실험 :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800 nm 파장의 빛을 길이가 1 m인 광통신 케이블의 한쪽 끝에 입사시키고, 다른 쪽 끝에 실리콘으로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때 100 nA의 전류가 측정되었고 증배 계수는 40이었다. 작동 온도는 0℃, 역방향 전압은 110 V였다.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 ~ 1,000 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
- 본 실험 : 동일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가지고 작동 조건을 하나씩 달리하며 성능을 시험한다. 이때 나머지 작동 조건은 예비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① 역방향 전압을 100 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
- ② 역방향 전압을 120 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③ 작동 온도를 20℃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 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 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a)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설들을 설명하여 귀납이 과학적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 선험적 :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그런 것.
- 구제책 : 구제할 대책.
- 개연성 :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22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24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 ②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③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 ④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 (ㄴ)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ㄱ)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일 것이다.
(ㄴ)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200℃일 것이다.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①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ㄴ)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 ②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 ③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 ④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ㄴ)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 ⑤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ㄴ)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26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
- ② 그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빠졌다.
- ③ 그는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 왔다.
- ④ 그의 강연에 자신의 주장이 빠져 모두 아쉬워했다.
- ⑤ 우리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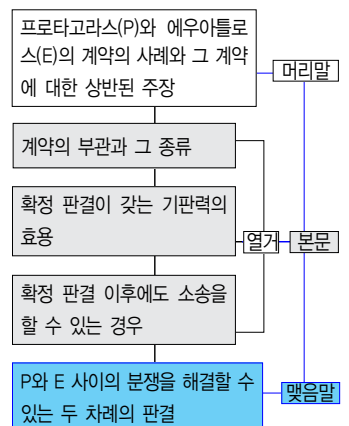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㉔받아들었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㉕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㉖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 난제로 알려진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계약의 사례와 그 계약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개념들을 설명한 뒤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함으로써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변론술 :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술.

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㉔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㉕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㉖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8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수취하였다
- ② ㉡ : 부가하는
- ③ ㉢ : 지시한다
- ④ ㉣ : 형성되었을
- ⑤ ㉤ : 경유하여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나무, 박완서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청춘의 성숙 과정과 진정한 삶에 대한 깨달음

짧은 줄거리 : 한국 전쟁 중 서울 명동의 미군 PX 초상부에 근무하는 주인공 이경은 미군에게 초상화를 그려 주는 화가들 속에서 옥희도를 만난다. 자기 때문에 두 오빠가 폭격으로 죽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두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암울한 집안 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경은 '황량한 풍경'이 담긴 눈을 가진 옥희도에게 끌린다. 두 사람은 명동 성당과 장난감 침팬지가 술을 따라 마시는 완구점 사이를 거닐며 사랑을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옥희도는 진짜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 이경은 어느 날 PX에 나오지 않는 옥희도를 찾아 그 집에 갔다가 캔버스에 고목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이경은 역시 미군 PX에서 일하는 황태수라는 청년과 결혼한다. 세월이 흐른 뒤 이경은 옥희도의 유작전에 가서 지난날 옥희도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죽어버린 고목이 아니라 벌거벗은 그 나무 생명을 지니고 인내하고 있는 나무(裸木)이었음을 알게 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현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술한 애환을 가려 주던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삿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지금의 동서-은 연신 빠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뜰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㉔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㉕그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 “옥희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뭘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

“홍,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홍,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㉖비평가의 농간이었지...” / ‘홍,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㉗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㉘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목(裸木)」-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남편'의 행동은 ㉢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⑤ ㉢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32 **고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가**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 ②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 ③ **고가**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 ④ **고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고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희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장수 A :가만 계세요. 만약 내가 이 소를 샀다가두 나중에 탄로가 나면.....

개똥이 : 멍텅구리 같으니라구! 그런 걱정은 여기서 할 게 아냐! 자네가 입을 닥치구 있구 내가 입을 딱 찢어 버리구 있으면 누가 알아. 어느 개아들 놈이 안단 말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말어.

이때에 울타리 바깥 행길에 밭에 갔다 오는 말뚝이 나타난다. 말뚝이는 빈 지게를 졌다. 개똥이와 소장수를 보고 무루청한다.*

말뚝이 : (길에서) 개똥아 너 거기서 뭘 해? 그 사람은 누구야?

개똥이 :허긴 뭘 해. 아모것두 아니야. 소에 꼴 주고 있어.....

3장

이때에 또 국서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소장수와 개똥이는 슬슬 나가 버린다. 말뚝이는 소 옆에 와서 좀 ㉠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 마름 앞서고 그 뒤에 국서, 그리고 그 처 헛간으로 들어온다.

마름 :그러면 저 벼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돌다리께에 있는 논임자 곳간으로 저 내어다 두게.

국서 : 네.

마름 :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고 갈 테니 잘 명심해 두게! 작년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도합 닷 섬 여덟 말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와서 갇어진 것을 털면 꼭 닷 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단 말야!

말뚝이 : (옆에서 듣고 섰다가 통명스럽게) 그걸 어째야 한단 말요?

마름 : 금명간에 다 해다 갇으란 말야! 이놈이 왜 어른 말하는 데 쌍지팽이를 쪼고 나서? 원 버르장머리 없게.국서 잘 듣게. 대관절 이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일른 줄 알아? 명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이란 게 실시된다고.그런 게 되면 실상 작인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까지에는 여태 묵은 것은 다 맡겨 놔야지. 그렇잖으면 내년에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야. 도지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허구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국서 :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쭙 게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마름 :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을 못 갖다 갇으면 좋지 못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사정없이 딱 잘라서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 희곡/시나리오 이해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소, 유치진

주제 : 일제 강점기하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현실

해제 : 이 희곡은 일제 강점 하에서 농촌의 현실을 당시 농사의 근본이 되었던 소의 착취와 그로 인한 희망의 좌절을 통해 보여 주면서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 의식을 방화로 드러내고 있는 사실감 넘치는 작품이다.

서술상의 특징

1. 비속어,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2. 중심 소재인 소와 관련된 내용이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다.

잘 알아 생각해!

말뚱이 : 아니 뼈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 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었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국서 :이눔 말뚱아!

마름 : 이 망할 자식 보게. 늙은 사람 앞에 막 샷대질을 허구 이눔이 덤비지! 에이, 고약한 놈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말뚱이 : (악을 쓰고)아버지 좀 낵요. 노.....농지령이란 건 뭐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국서 :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눔, 버릇없어!

마름 :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둥이라두 빼어 가두 빼어 가구 술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흥 저놈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중략)

국서 : (말뚱이더러 노하여) 이눔아 나가거라! 소는 그예 너 놈 때문에 날려 버리고 말었다! 이 빌어먹을 놈! 왜 아까 마름한테는 덤뵈어?

처 : 이눔아, 너는 허는 짓짓이 미련스럽더라.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말뚱이 : 아니야, 가만 있어. 내 소 팔어먹은 놈은 알어요. 저 그 쇠똥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수?

소장수 B : 젊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똥똥허구.

말뚱이 : 똥똥허구 머리를 깎구..... 음! 그렇지! 이눔을 내가 죽여 버릴 테야.

국진 : 네가 아니?

말뚱이 :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뛰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소장수 B : 그럼 그건가 봅네다. 아무려면 불 안 땀 굴뚝에서 연기 날려구요. (퇴장)

국서 : 저런! 육싹!

처 : 이눔아. 똑똑이 못 본 일이거든 아예 입에 담지 말어라. 왜 그놈을 소도적놈으로 몰라구 그래?

국서 :아냐. 그놈일는지도 몰라. 그놈이 소 팔아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 유치진, 「소」-

* 무무청하다 : '무르춤하다' 의 잘못. 뜻밖의 사실에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뜻이 하여 행동을 갑자기 멈춘다.

3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뚱이’는 ‘개똥이’와 ‘국서’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 ② ‘국서’와 ‘말뚱이’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도 ‘마름’에 대해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 ③ ‘국서’는 ‘개똥이’의 예전 행동을 근거로 ‘말뚱이’의 판단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말뚱이’는 ‘소장수 B’가 제공한 정보에 의지하여 ‘개똥이’가 ‘소장수 A’에게 소를 넘겼다고 믿고 있다.
- ⑤ ‘마름’은 도지 갇기를 독촉하는 자신의 행동이 논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국서’ 부자의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인해 생긴 ‘말뚱이’와 ‘마름’ 간의 불화 때문에 ‘마름’이 ㉡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
- ② ㉠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 채고 ‘말뚱이’가 ㉡을 대비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 ③ ㉠으로 인해 ‘개똥이’는 ‘말뚱이’에 대한 증오심을, ㉡으로 인해 ‘마름’은 ‘국서’ 부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 ④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뚱이’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뚱이’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⑤ ㉠으로 인해 ‘말뚱이’는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라는 말을 듣고 ‘국서’는 ‘마름’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소」는 1935년에 발표된 유치진의 초기 사실주의 극이다.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소」는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용어의 사용,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과 대화 상황의 제시,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사용 등을 통해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나 관습 그리고 농촌 사회에 내재된 갈등 상황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 ① ‘소’, ‘울타리’, ‘빈 지게’, ‘헛간’ 등을 연극적 장치로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미고 있군.
- ② 인물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과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통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군.

- ③ ‘마름’의 뒤를 따라가는 ‘국서’의 행동과 ‘국서’에게 지시하는 ‘마름’의 행동을 통해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를 보여주고 있군.
- ④ ‘농지령’, ‘작인’, ‘도지’ 등 농민과 관련된 법령 및 용어를 사용하여 무대 위의 상황이 당대의 농촌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늙은 사람 앞에 ~ 고약한 늬 같으니!’,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등의 대사를 통해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보여 주는군.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토끼전, 작가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허욕에 대한 경계와 왕에 대한 충성심

짧은 줄거리 : 용왕이 병이 나자 도사가 나타나 육지에 있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이 때 별주부 자라가 나타나 자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자라는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한다. 이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이른다. 간을 내라는 용왕 앞에서 속은 것을 안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이에 용왕은 크게 토끼를 환대하면서 다시 육지에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자라에게 욕을 하면서 숲 속으로 도망가 버린다. 어이없는 자라는 육지에서 죽거나 빈손으로 수궁으로 돌아간다. 이후 토끼는 몇과 독수리의 위험도 피로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준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턴가, 나의 정성 부족턴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더니,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피와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死)라. 무이불식(無以不食)이라, 모조리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네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넓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았으며 움쳐 든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마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

“게서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 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리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몰라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냐?”

“어디 좀 알아봅세.”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

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㉔초가성중(楚歌聲中)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욱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닫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충 철환 닫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림(東林)을 헤치면서 꾸루꾸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고.”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뿔싸,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연석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파연(罷宴) 후에 왕께 주왈,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 자연 회복하올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불일내(不日內) 평복(平復)하오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도 믿고 듣는지라. 즉시 하령 하되,

“출세(出世)하였던 별주부 오래 묵은지라.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도독 거북이 아뢰되,

“㉕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진다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니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불가사문어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

이때 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 동행한 정분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하리라.”

하고, ㉔즉시 별당을 소궤(掃灑)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은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작이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불가사문어인국 :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낚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㉓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㉔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㉔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 들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뭄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제2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膠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얹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작품명과 작가

⑦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나무, 샘	→	국가(상징)
꽃, 열매, 바다	→	문화의 번성(상징)
경천근민	→	주제 표출

주제 | 2장 : 조선의 무궁한 발전 송축
125장 : 후손들에 대한 권계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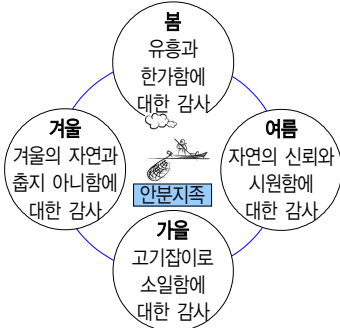
- 1 2장은 상징과 대구적 표현으로 동일 의미를 반복하고 있다.
- 2 125장은 고사를 인용하여 후왕들에 대한 권계를 표현하고 있다.

해제 2장은 조선의 번성을 상징적으로 송축하고 있으며 125장은 고사를 활용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후왕들에게 권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④ 강호사시가, 맹사성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함

표현상의 특징

- 1 동일한 통사 구조와 어절을 반복하여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 2 계절의 순환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강호 생활과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심정을 네 계절에 따라 한 수씩 노래한 연시조이다. 대자연에 파묻혀 안빈낙도하며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선비의 일상생활을 읊으면서도 그것이 오직 임금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유교적 충의 이념(忠義理念)으로 귀결시킨 조선 전기 시조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이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옵도 역군은이샀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옵도 역군은이샀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복년 :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 성신 : 훌륭한 임금의 자손.

* 낙수에~민졌습니까 : 중국 한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 ②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1 <보기>는 (나)의 글쓰기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ㄹ.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등 정치적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 신하들이 창작하여 궁중 의례에서 연행된 작품이고, 「강호사시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사대부들은 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 ② (가)에서 ‘경천근만’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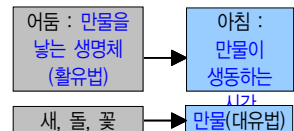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올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작품명과 작가

②아침의 이미지 1, 박남수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어둠이 생산한 아침 이미지
 의 생동적이고 순수한 아름다움

표현상의 특징

- 1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생동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 2 잉태와 생산의 이미지를 활용해 어둠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해제 아침이면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사물들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모든 물상이 잠에서 깨어나 일상을 시작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④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텔레비전 : 기계
문명(대유법)

풀벌레 :
자연(대유법)

주제 | 자연의 작은 소리에서 느끼는 즐거움

요 표현상의 특징

- 대유적 표현으로 자연의 소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를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다.

해제 기계 문명에 휩싸여 소원해졌던 자연의 작은 소리들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나

- 텔레비전을 끄자
- [A] 풀벌레 소리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 [B]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 [C]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 [D]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 바닥에 새가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크게 밤공기 들어쉬니
- [E]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폴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6 수능 국어 A형 문제 정답 및 해설

홀수형

2016 수능 A형 정답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③	0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①	24 ⑤	25 ⑤	26 ①	27 ①	28 ③
29 ⑤	30 ②	31 ①	32 ③	33 ④	34 ①	35 ⑤
36 ⑤	37 ①	38 ⑤	39 ③	40 ⑤	41 ②	42 ④
43 ⑤	44 ④	45 ③				

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말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해설사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진행자는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는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연관시키고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라며 질문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진행자는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라고 말하면서 대답에서 다룬 내용의 주제를 안내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묻고 있다. ③ 해설사는 문헌적 기록을 활용해 진행자의 말이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다. ⑤ 진행자는 청취자들에게 확인을 권유하면서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 애답 ④

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표현 기법에 맞는 대담의 제목과 이를 의도에 맞게 활용한 표현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해설사의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라는 말에 대담의 주제가 드러나 있는데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라는 표현은 이를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이를 답사 목적에 맞게 서술하면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과학적 원리는 대담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③ ㉠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항전의 역사는 대담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④ ㉠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은 대담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⑤ ㉠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어 적절하나 ㉡의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은 대담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 해답 ②

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옳대로 정답 찾기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등의 구절로 보아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② 발표 대상인 희토류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한계나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③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다. ④ 청중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⑤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요약은 없다.

✓ 해답 ①

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발표 계획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옳대로 정답 찾기 ㉠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시간에는 희토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다. ㉡과 관련된 내용이 “희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다. ㉢과 관련된 내용이 ‘더불어 생활 속에서 희토류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다.

- 오답 바꾸기 ㉣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 해답 ④

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발표 내용과 무관한 질문이나 이미 발표된 내용에 관한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옳대로 정답 찾기 학생 3은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라고 추가 질문하고 있는데 이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발표 구절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바꾸기 ① 학생 1의 질문은 '이 희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에 발광 재료로 쓰이는데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는 발표 내용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분명히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어서 적절하다. ② 학생 2의 질문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다른 사례에 대한 질문이어서 적절하다. ④ 학생 4의 질문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희토류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어서 적절하다. ⑤ 학생 5의 질문은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발표 내용이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라는 논거가 부족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어서 적절하다.

✓ 애 답 ③

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작문 계획 중 실행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는 초고에 제시되지 않았다.

- 오답 바꾸기 ① ㉠은 초고의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라는 내용에 반영되었다. ② ㉡은 초고의 '여행지나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도 문제이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에 반영되었다. ③ ㉢은 초고의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된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에 반영되었다. ④ ㉣은 초고의 '그래서 만약 여행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에서, 주차장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방 자치 단체의 주차장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반영되었다.

✓ 애 답 ⑤

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은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 준다.'라고 구체화할 수 있으며,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은 '앱 개발 시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다.'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공공 데이터의 제작 목적과 이를 활용할 때의 장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공공 데이터의 활용처와 앱 개발을 통한 창업의 효용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개념과 공공 데이터의 양이 증가에 따른 전망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앱 개발을 할 때의 공공 데이터의 유용성과 공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 애 답 ④

8.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장이나 문장 접속 관계를 잘못 고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길이는 '늘이다'란 표현이 가능하나 양은 '늘리다'란 표현이 적절하므로 '늘이다'로 고치면 적절하지 않다.

● **오답 비루기** ① 조사 '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데 도심은 주차장을 못 찾아 해매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므로 '에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⑥의 앞과 뒤가 '포기하다'와 '포기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상반되므로 '그러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공공 기관'이 주어이므로 능동 표현인 '시행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해당 문장의 생략된 주어가 '앱 개발자들이'이므로 주동 표현인 '들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해답** ③

9.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소재와 관련된 표현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소재 '가을'과 관련시켜 표현한 주제는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이고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 **오답 비루기** ①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②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③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 **해답** ④

10.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조건에 맞는 결론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둘째 문단의 주제는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보기>의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로 유추하여 보면 서로 다른 점을 지닌 개인들의 조화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하면 ③과 같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④, ⑤ 모두 둘째 문단의 주제는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 답 ③

1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에 적용된 원칙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 ㉡에서 7 대표음이 아닌 받침 뒤에 자음이 이어지면 받침은 모두 대표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바뀐다. ㉢에서 ‘닭는’은 [닥는] → [당는], ‘부엌문’은 [부억문] → [부영문] 등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7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 자음 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에서는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에서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 ㉡에서는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에서는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④ ㅁ의 영향으로 ㅌ이 대표음인 ㄷ을 거쳐 ㄴ으로 발음되더라도 ㅁ은 조음 위치로 보아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이고 ㅌ, ㄷ, ㄴ은 모두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조음 위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자음 동화에서 조음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구개음화에서는 조음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다. ⑤ ‘앉고 → [안꼬]’에서는 ㄴ의 일부인 ㅈ이 탈락하여 ㄴ으로 바뀌고 뒤에 ‘ㄱ, ㄷ, ㅂ, ㅅ’과 같은 자음으로 이어지는 어미가 왔을 경우에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된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탈락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맞다. 이를 ㉢에 적용시켜 보면 ‘읽자’에서는 받침의 일부인 ㄹ이, ‘훑거나’에서는 ㅌ이 탈락했다. 그러나 ㉢에서는 ㄱ과 ㅋ은 하나의 자음으로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참고로 ㄱ, ㄷ, ㅂ, ㅅ, ㅈ 등의 겹받침은 하나의 자음이다. 이들이 각각 ㄱ, ㄷ, ㅂ, ㅅ, ㅈ 등으로 바뀌는 것은 탈락이 아니라 교체이다.

✓ 답 ③

1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조사, 어간, 선어말 어미의 공통점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조사 은/는은 체언에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어간 ‘-들’은 어미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는가 모음으로 시작되는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은 반드시 어간과 어미 사이에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앞 모음이 양성 모음인가 음성 모음인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이러한 점의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④, ⑤ 조사 ‘은/는’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지만 어간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단어의 자격이 없다. 또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 해답 ③

1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서술어의 용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의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라는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이 ‘눈이 아주 나빠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라는 말이므로 ‘안경 벗고 있어도’란 구절은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지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 오답 바꾸기 ① ‘양치질하는 중이었어요.’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 B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가 말하기 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적절하다. ⑤ ‘넥타이를 매고 있는 중이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넥타이를 맨 상태이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④

1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단어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같이㉔①’은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에서는 ‘같이’ 다음에 ‘차가운’ 등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서는 ‘매일같이’ 다음에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오지 않고 ‘지하철’이라는 명사가 오고 있어 ‘같이㉔①’의 용례가 될 수 없다. 이때의 ‘같이’는 ‘같이㉔②’의 용례로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같이’ ‘㉔①’에서 ㉔는 부사임을 나타내고 ‘㉔②’에서 ㉔는 조사임을 나타낸다.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에서 둘 다 ‘함께’의 의미가 공유되어 있어 동일 어근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같이하다’는 ‘같이’에 접미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이자 복합어이다.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를 ‘【(…과)…을】’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므로 두 가지 문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과)’를 사용하면 세 자리 서술어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⑤ ‘같이하다’ ①의 용례로 ‘=함께하다①’과 그 의미나 용법이 같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해답 ②

1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법에 맞는 문장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②에 해당하는 문장을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려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뽑아보면 '사람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은 '후'라는 명사를 꾸미는데 이도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후'는 '후에'의 준말로 부사어로 문법에 맞다. 또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는 '관형어+부사어+부사어+관형어+관형어' 형태의 구조로 문법에 맞다.

● **오답 비루기** ① '발전해'를 '발전시켜'로 고쳐야 된다. ③ '따라'를 '따른'으로 고쳐야 된다. ④ '요점은'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므로 서술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고쳐야 된다. ⑤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를 '학생들의 서술어가 되게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로 고쳐야 된다.

✓ **예답** ②

1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②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④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 **예답** ⑤

1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구체적 사례에 적용된 원리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라는 구절로 보아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는 말은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① 알짜 돌림힘은 을의 돌림힘($200\text{N} \times 2\text{m}$)-갑의 돌림힘($300\text{N} \times 1\text{m}$)= 100

($N \cdot m$)인데 변화는 없다. ③ 문이 회전하므로 돌림힘은 평행이 아니다.
 ④, ⑤ 감($300N \times 1m$)보다 을의 힘($200N \times 2m$)이 세게 가해지므로 알짜 돌림힘의 방향은 을의 힘의 방향과 같다.

✓ 해답 ②

18.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 B에 가해 주는 힘을 $1N$ 으로 설정해서 ④의 경우를 계산해보자.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4\pi J(1N \cdot m \times 4\pi)$ 이다. 또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2\pi J(1N \cdot m \times 2\pi)$ 이다. 따라서 4배가 아니라 2배가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알짜 돌림힘이 0이 되어도 알짜 돌림힘이 물체의 회전 방향과 반대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③ 돌림힘에 반대 방향의 힘을 제거했으므로 알짜 돌림힘이 커져 회전 속도도 증가한다.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멈춤 상태가 되었다가 즉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점차 커진다.

✓ 해답 ④

19.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구절의 조건과 결과를 뒤집어 말하면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구절의 내용에 어긋난다. ③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광자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지 광자수 자체를 늘리는 장치가 아니다. ④ '저마늄은 $800 \sim 1,600 \text{ 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구절의 내용에 어긋난다. 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이라는 구절의 내용에 어긋난다.

✓ 해답 ②

20.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양자 효율과 관련된 구성 요소는 흡수층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라는 내용과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 보면 흡수층에서 들어오는 전자의 수와 충돌 이온화의 횟수는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 **매 답** ③

2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라는 구절로 보아 작동 온도가 커지면 전자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 보아 전압이 낮아질수록 전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증배 계수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라는 구절과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라는 구절로 보아 전압이 높을수록 약한 광신호를 강한 전기의 세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보기>의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1,000 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라는 구절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 **매 답** ③

2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주제와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귀납의 개념과 효용 및 문제점, 둘째 문단 : 흄의 귀납의 정당화 문제점, 셋째 문단 : 라이헨바흐의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구체책, 넷째 문단 :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인 미결정성의 문제, 다섯째 문단 :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확률과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받는 귀납. 이로 보면 전체의 주제는 귀납법의 논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글 전체의 주제와 무관하다.

✓ **해답** ⑤

2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미루어 알아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많은 관측 자료 즉 귀납의 사례가 아무리 많아져도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 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리는 오류를 벗어날 수 없다.

● **오답 비루기** ②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자연의 일양성’은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해당하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①

2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대상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라는 구절로 보면 라이헨바흐는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마지막 문단의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구절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②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라는 구절에서 알아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라는 구절을 보아 논리적 판단의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구절에서 경험적 판단을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언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다.

✓ **해답** ⑤

2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하므로 <보기>의 사례를 일반화한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는 매년 상승한다'란 원칙을 믿을 것이나 확률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1년에 10℃씩 상승한다란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더라도 (ㄱ)과 (ㄴ)을 동등한 예측이라 생각할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보기>에서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둘 다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라는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한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는 매년 상승한다'란 원칙을 믿을 것이며, 이로부터 추론한 (ㄱ)과 (ㄴ)을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②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매년 10℃씩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ㄱ)이 (ㄴ)보다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예측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③ 1년에 10℃씩 상승했다는 사례를 하나 추가하면 A는 1년에 10℃씩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B는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는 매년 상승한다'란 원칙을 믿을 것이나 확률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1년에 10℃씩 상승한다란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ㄱ)과 (ㄴ)을 동등한 예측이라 생각할 것이다.

✓ **해답** ⑤

2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와 같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 관련된 구절인 '순환 논리에'라는 구절과 ㉠을 관련시켜 보면 ㉠은 추상적의 의미에 매립되어 버렸다는 의미가 된다. '혼란에 빠진 적군'에서도 '빠진'은 추상적인 의미인 '혼란'에 매립되어 버렸다는 의미이다.

● **오답 비루기** ㉡, ㉣ 둘 다 결핍되다란 의미이다. ㉢ 물리적으로 들어가다란 의미이다. ㉤ 뒤떨어지다란 의미이다.

✓ **해답** ㉠

2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제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승소는 패소의 경우가 있으므로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 **오답 비루기** ㉡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하였으며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라 하였는데 그 공통점은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라 하였으며 해제조건은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상 유지되는 효과를 정지시킬 수 있다. ㉣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고 하였으며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고 한 것은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판력과 관련된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

28.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E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청구하여 패소하면 E가 승소하게 된다. E가 승소하게 되면 두 번째 소송에서 또 P가 E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청구하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라는 계약에서 조건이 만족되었으므로 승소하게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E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야 수강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②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E의 패소를 의미하므로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④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패소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 매 답 ③

29.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제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더라도 기한인 2015년 2월 15일이 되기 전인 같은 해 11월 30일 전에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것은 이전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이므로 불가능하다.

- 오답 비루기 ① 확정 판결이 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2015년 11월 30일이 기한이 되므로 기한 이전에는 을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기한이 지나면 기판력이 없어지므로 적절하다.

✓ 매 답 ⑤

30.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⑥와 관련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이라는 구절과 '부관의 '부'라는 글자를 볼 때 '덧붙이는'은 추가로 보탠다는 의미가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수취는 물건을 받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호칭한다는 의미이다. ④ 발생하다란 의미이다. ⑤ 특정 장소를 지나간다는 의미이다.

✓ 매 답 ②

3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인물의 심리와 태도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의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샅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라는 구절은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라는 구절과 연관되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고자 하는 '남편'의 실리 추구의 속성을 드러내고 ㉡과

는 관련이 없다.

- 오답 바꾸기 ② ㉠은 의지가 들어 있는 행동으로 실리적인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의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이라는 구절은 '남편'의 외양을 묘사하는 구절이고 '모멸과 혐오'는 '나'의 심리를 드러낸다. ③ ㉢의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라는 구절은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드러내고 ㉣의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는 '그의 아내로서 편하지 못한 나'의 일면을 나타낸다. ④ ㉤에서 서술된 행위의 이유를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라는 구절에서 밝히고 있고 '키스를 퍼부었다.'란 행동은 낯섬을 해결하기 위한 친밀감의 표현이다. ⑤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라는 구절과 고가의 일부인 은행나무를 그냥 두기를 바라는 것을 관련시켜 보면 이는 '나'의 일부를 그냥 남겨 두고 싶은 심리를 드러낸다.

✓ 해답 ①

3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소재에 대한 인물의 심리나 태도, 의도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라는 구절로 볼 때 고가의 철거는 남편의 의도이고 그 의도는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를 드러낸 구절은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라는 구절에 '남편'의 실용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②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나'라는 구절과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라는 구절에서 '남편'과 '나'의 고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낸다.

✓ 해답 ③

3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의미와 동일한 속담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의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라는 구절은 '원칙이 없

이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과 뜻이 같다.

- 오답 비루기 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 ③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잘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

✓ 해답 ④

3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인물의 심리, 태도,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말뚱이'의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뭐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라는 대화로 보아 '말뚱이'는 '개똥이'와 '국서'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은 없다.

- 오답 비루기 ② '말뚱이'는 소와 관련된 정보를 '국서'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나 '마름'에게 대하는 태도는 고분고분한 '국서'와 달리 저항적이다. ③ '국서'의 '.....야나. 그놈일는지도 몰라. 그놈이 소 팔아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④ '말뚱이'의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뭐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⑤ '마름'의 '나는 그 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라는 말은 도지 갇기를 독촉하는 자신의 행동이 논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고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다.

✓ 해답 ①

3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구절과 관련된 의미나 행동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과 관련된 '말뚱이는 소 옆에 와서 좀 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라는 구절을 보면 '말뚱이'는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 같은 말을 듣고 '국서'는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놈, 버릇없어!라는 구절과 같이 말과 행동으로 '말뚱이'를 만류함으로써 '마름'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보인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방법은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과 관련이 없는 의미이다.

✓ 해답 ⑤

3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희곡을 잘못 감상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늙은 사람 앞에 ~ 고약한 늙 같으니!'라는 대사는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보여 주지만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라는 대사는 말뚝이가 동생인 개똥이가 소를 판 행위에 대해 심증을 굳히는 구실을 하지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오답 바꾸기 ① '소', '울타리', '빈 지게', '헛간' 등은 실제 동원된 소도구나 배경으로 이는 사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실적인 느낌을 강화한다. ② '지팡이로 때린다.' 등의 구절에서 인물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 드러나며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등의 구절에서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통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마름의 반말에 대해 국서가 존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농지령', '작인', '도지' 등 농민과 관련된 법령 및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성을 높여주고 현실성을 강화한다.

✓ 해답 ⑤

3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인물의 의도나 심리, 태도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과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나'라는 구절을 관련시켜 보면 이는 호랑이에게 죽을 각오로 싸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②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라는 구절과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라는 구절을 관련시켜 보면 이는 호랑이가 겁을 먹은 것을 나타낸다. ③ 자라가 패배했다는 내용은 없다. ④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토끼가 겁색을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별주부 부부의 두 목숨을 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 해답 ①

38.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㉔은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으므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나 일이 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

는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①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라는 구절에서는 동일 어구의 반복되었고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라는 구절에서는 반복법과 대구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자라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② ㉡에서는 뚝, 빙빙, 찢쩍 등의 의태어가 사용되었는데 의태어는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③ ㉢에서는 도망가는 모양을 다섯 가지로 비유적으로 묘사해 호랑이가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④ ㉣에서는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지면 좋은 활이 숨는다.’라는 고사를 활용해 별주부를 죽이지 말라는 의사를 용왕에게 전달하고 있다.

✓ 애 답

⑤

39.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설을 잘못 감상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토끼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거나 호랑이에게 불리한 화제 즉 별주부 자신의 근본과 도로랑 귀신을 내세워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② 호랑이의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④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 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라는 토끼의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⑤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이라는 토끼의 말로 보아 적절하다.

✓ 애 답

③

40.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제2장에서는 나무와 샘 즉 자연을 국가로 상징하여 바람직한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고 제125장에서는 성신이 왕위를 이어도 경천근민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제2장의 1행과 2행은 대구를 이루면서 나무와 샘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1행은 ‘-으시니’, 2행은 ‘-으시리이다’, 3행은 ‘-겠습니까로 끝맺고 있다. ③ 제2장은 수신자가 없으나 제125장은 ‘임금’으로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④ 제125장은 ‘천세, 누인개국’ 등등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으나 제2장은 순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다.

✓ 애 답

⑤

4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ㄱ : 각 수 초장은 '강호(江湖)에 봄(여름, 가을, 겨울)이 드나'로 시작하고 있어 적절하다. ㄴ : 각 수의 중장은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 '소정(小艇)에 그물',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등인데 이들은 주변의 자연과 이를 즐길 수 있는 소도구 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ㄷ : 각 수의 중장은 '하음도 역군은이샷다'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ㄴ : 각 수 초장의 후반부는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고기마다 살찌 있다',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라는 구절은 내면의 감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는 자신의 정황을, '고기마다 살찌 있다',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등은 외부의 정황을 표현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 해답 ④

4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은 감상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의 '소장', '그물' 등의 인공물은 강호에서 '이 몸이 소일(消日)'하는데 필요한 살림 도구이다.

● 오답 비루기 ①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꽃 좋고 열매 많나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등과 각각 관련을 맺으면서 문화가 번창하고 위대한 문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므로 왕조의 송축과 관련이 있다. ② 경천근민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돌본다'란 의미이므로 정치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 ③ '한가하게 '소일'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지만 이러한 것들에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란 표현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⑤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지칭하는 말이며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나'라는 표현과 관련을 맺으면서 새 왕조에 대한 송축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나)의 '강호'는 각 수의 중장에서 개인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고, 중장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샷다'라는 표현과 관련을 맺으면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

✓ 해답 ④

4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구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의 '어둡은 새를 낳고, 돌을 / 낳고, 꽃을 낳는다'라는 구절은 어둡은 생산력을 표현하고 있으나 (나)의 어둡은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

를 생각한다' 등의 구절에서 보듯 기계 문명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구실을 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이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② '어둠 속에서 들으니 별레 소리들 환하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③ (가)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등의 구절에서 어둠 다음에 이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고 있고 (나)는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등의 구절에서 어둠이 계속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어 적절하다.
- ④ (가)에서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등의 구절이 어둠 다음에 변화된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는 '별레 소리들 환하다 /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라는 구절에서 방 안의 변화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⑤

4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즐거운 지상의 잔치'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과 지상의 즐거운 움직임이 어울리는, 생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생기 넘치고 즐거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일상적인 삶을 위하여 가볍게 움직이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아침이면, /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어둠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사물들이 아침에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④

4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C의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 다'라는 구절은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라는 구절과 관련을 맺으면서 작은 울음을 우는 풀벌레에 대한 애처로운 정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A의 '풀벌레 소리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라는 구절은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B의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라는

구절은 작은 울음을 우는 풀벌레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됨을 표현함으로써 인식의 범위를 넓힘을 보여준다. ④ D의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라는 구절은 텔레비전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작은 울음소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하는 표현이다. ⑤ E의 ‘크게 밤공기 들어쉬니 /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라는 구절은 풀벌레 소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환해진 마음 즉 기쁜 마음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 해답 ③

방법은있다 시리즈는 최신 원리와 유형 문제를 제시합니다.

- 방법은있다 국어 **현대시/고전시가편**
- 방법은있다 국어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 방법은있다 국어 **독서편**
- 방법은있다 국어 **문법/화법/작문편**
- 한자 성어 퍼즐, 속담 어휘로

방법은있다 시리즈는 인터넷 상 오르비스 유틸무스 전자책 판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